

#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 미국의 83%”

기술격차는 3년…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분야 예산 등 전폭 지원 통해 기술격차 시급히 축소해야”

이상기상 발생 기후변화 현상이 현실화 되고 금세기 말까지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지속될 전망으로, 사파, 고랭지 배추, 인삼, 벼 등이 우리나라에서 시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재·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작물 재배 가능 면적 기준 401만ha에 달하는 사파는 2090년 1만8,000ha로 줄어들어 재배가능면적이 현재 대비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배추는 132만9,000ha(10%)에서 4,000ha(0.3%), 인삼 713만2,000ha

(100%)에서 44만7,000ha(6%)로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으며, 현재 생산성 100%인 벼의 경우 2090년 48%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기후지역 확대로 주요 작물의 재배지, 생산성 및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온난화 지속시 사파·고랭지 배추·인삼 등 호령성 일부 작목에 대한 재배지는 급감하고 남해안 중심으로 아열대 작목지대가 증가할 것으로 농



진정은 예상했다.

한반도 기후가 1.5°C 상승 되는 2040년에 사파는 70%, 고랭지 배추는 94% 이상 재배작지가 감소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으며, 특히 벼의 경우 2080년대 평야지 대부분에서 20%이상 불임이 전망돼 작부체계 및 신품종 육성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분야 기술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 수준으로, 미국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99.6%, 일본 97.5%, 네덜란드 95%, 한국 83.3%, 중국 7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격차는 미국을 기

준 0.0년으로 봤을 때, 일본 0.8년, 네덜란드 1.0년, 독일 0.2년, 한국 3.0년, 중국 4.7년 등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식량안보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 등 대폭 지원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를 시급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엔생물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사라지는 생물은 2만5,000에서 5만종이며, 2030년~2040년에는 전체 생물종 수 25%가 멸종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수 기자

## 프랑스서 관광협력 토대 마련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프랑스 관련 지자체와 관광협력 추진 토대 마련, 서해안·새만금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수변개발 시사점 확인, 내년 개최를 앞둔 2023 세계스카우트 캠버리 및 전라북도 문화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1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단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도로 개설 등 내부 개발 가속화로 인한 전북 서해안면 새만금 관광 여건 변화에 신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이 함께 했다.

먼저, 조 행정부지사는 노르망디 광역도 총괄관광청·아나시스 드보트와 면담을 가지고 관광협력 추진 토대를 마련했다.

새만금을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변화로 주변 지역에 다양한 관광여건변화가 예측 되는 바, 풍부한 해변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노르망디가 전북관광의 모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르망디 광역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통계)에 기반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발 초기부터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투자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시 지원(기아드 리anford)을 끄를 수 있도록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다.

도별시장(필립오기어)과의 면담에서,

도별사는 여름 3개월만 찾던 관광객을

수십년에 걸쳐 컨벤션, 호텔, 위락휴양



### 조봉업 행정부지사, 노르망디 광역도 등 지자체 찾아

전북 서해안·새만금권 관광여건 변화 선제 대응 나서

전거길 확충, 기차여행의 확산 등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있으며,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확충, 장애인을 위한 관광시설 개선 및 서비스 제공 버스·트램 등 대중교통 확충,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시설 편의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파리 한국문화원장과 관광공사 파리지사장 면담에서는 한류(한복, 한지, 한식 등의 본고장) 전북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프랑스 유럽에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23 새만금 캠버리를 홍보했다.

이번에도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신설 범 사회공사와의 면담에서 OECD 한국 대표부에서 OECD 회원국들에게 새만금 캠버리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함께 OECD 관광위원회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사회공사는 우리 문화·한류의 세계 전파를 위해 캠버리 기간 중 국민들의 우리 문화 체험 기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광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며, 음식·숙박 분야가 주업종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국내관광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내년도 캠버리 기간중 우리 한류와 전라북도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더욱 더 도내 관광기반 확충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285명 청와대 개방에 무리하게 동원”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평균 3.1일간

민주 김윤덕 의원 “줄속 개방으로 업무부담 커져

사무에 큰 차질… 운영 관리권 문제부터 매듭져야”



하지만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쓴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공무원이 청와대 개방에 동원됐지만, 앞으로 청와대 개방 사무는 문체부가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 문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개방 운영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대통령실과 문체체육관광부간 신규 관리위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문화재청 내부자료를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된 ‘내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말경 문체부와 문화재청 정책실무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8월 들어주까지 사무인계인수를 진행한 후, 8월 22일부터 문체부가 개방 운영 추진하는 등 구체적 사무 이관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계획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지난 8월 중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체부 이관을 연기까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청와대 줄속 개방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커지고, 부처간 업무 갈등으로 문체부는 청와대 개방 운영 추진하는 등 구체적 사무 이관 로드맵을 내부적으로 계획한 것이 드러났다. 다만, 지난 8월 중순, 무슨 이유에서인지 문체부 이관을 연기까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와대 운영 관리권 문제부터 조속히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특교세 41억 확보

### 고창 서해안 만수 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 등



관 중축 4억원 △모로비리공원 유아숲 진입로 조성사업 3억원 등 총 5건, 사업비 26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입안면 전원전 세부 포장공사 5억원 △다목적 생활안전지대 조성사업(CCTV 설치) 5억원 △정읍 신용 농공단지사면(용변) 정비공사 4억원 △수성·금릉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사업 1억원 등 총 4건,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창 서해안 만수 시 상습침수지역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특교세 확보를 통해 펌프 일체형 수문 및 협잡물 스크린 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간 집중호우 발생 시 고창 주민천 범람으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하던 부정미를 주민들이 침수예방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수 기자

##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더 낮은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원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축! 전주매일 창간  
(구)서도역[미스터 선샤인] 드리마영화 철영자